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20. 빌라델비아 교회

2013. 05. 1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고 진리를 옳게 분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3:7~13]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만, 또 사데 교회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답: 사데 교회로 표상된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죽 살펴본 대로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는 숨은 교회와 드러난 교회의 이중구조로 보입니다. 숨은 교회는 진리를 따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핍박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교회는 정치와 야합해서 교회가 정치를 주장하는 형국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위하여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때에 숨은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개혁합니다. 그렇게 개혁의 시대를 맞은 교회가 사데 교회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찬송이라는 뜻이 맞지요. 그런데 또 남은 것이나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서 도망 와서 남은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는 칭호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으니 기쁨의 노래를 불렀겠지요.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교파가 생겨서 정말 백가쟁명의 시대가 되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잡으신 분의 인도를 바르게 따라서 흰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2.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답: 빌라델비아는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BC 138년 이전에 세워졌고, 버가모 왕국의 앗탈루스 II세가 그보다 먼저 왕위에 오른 형 유메네스 II세에게 충성의 표로 버가모의 필라델푸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AD 17년의 파괴적인 지진 후에 그 도시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건했으나 비교적 작은 규모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사데의 동남쪽 약 48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고원 도시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였습니다. 그곳은 서머나와 리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지진이 잦아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렸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고 2,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B. C.159-138) 아시아가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짓밟힐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堡壘)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암미아(Ammia)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AD 100-160) 큰 부흥을 이룬 듯하다고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흠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으나 또한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와 같이 자칭 유대인의 회가 빌라델비아에도 있다고 기록되었지요. 이 도시의 현재 이름은 알라세히르인데 신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 아마도 목사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설명하지 않는데, 같은 말씀이 교회마다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같은 사실이니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편지하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칭호가 1:13~16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에는 기록되지 않은 칭호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사데 교회까지는 1:13~16에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을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했는데,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는 거기 묘사하지 않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시대적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런 칭호로 편지하는 것이 합당하였기 때문이겠지만, 교회 시대로 볼 때에 이 시대는 개혁교회 시대인 사데 교회 시대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우애로 뭉쳐서 책망이 없는 교회를 형성한 사실을 볼 때,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복음의 진리가 열린 시대에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3.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요?

답: 버가모 교회 시대를 지나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이르러 교회가 세상 정치권력까지 쥐고 세상을 호령했지요.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를 역사가들이 암흑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암흑세력의 사

자라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영적 안목이 트인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었지요. 그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개혁의 새벽별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동안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다가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 교회 시대에 흰옷을 입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들을 이끌어 형제우애의 지극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 앞에 진리의 문을 활짝 여시고 두아디라 시대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용납하셨다가, 이제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열린 문으로 온전히 깨닫고 개혁한 진리의 백성을 두시는 시대가 되는데 선구자적인 일을 한 교회시대가 빌라델비아 시대라는 말입니다.

4. 예,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시대에는 두아디라 시대에 아직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내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진리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말씀하실 것이지요?

답: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먼저 예수께서 사용하신 칭호에 대하여 더 살펴본 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7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자”는 헬라이어 “호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인데요, “호 하기오스”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사1:4; 5:19,24; 10:17,20; 12:6; 렘51:5; 겔39:7; 호11:9; 합3:3)등 여러 곳에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 그분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눅1:35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릴 때에 “나실바 거룩한 자”라고 하여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거룩하신 자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지요. 다음 “호 알레디노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1) 온전하며 충성된 자.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충성으로 메시아적 직무를 수행하신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진실한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었는데(사 65:16)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므로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드러낸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사22:15-25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국고를 맡고 있는 셉나 대신에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한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에 대한 설명인데 당시 빌라델비아의 사정을 반영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 많이 거주하였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하였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계시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의식에 대한 반론이며,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창호로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위로하신 것이지요.

5.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아디라와 사데 시대에 미진한 개혁을 친히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창호가 되겠군요?

답: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예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지요. 천국 문이나 복음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교단은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것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 하며 교회가 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여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할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계시록의 이 말씀은 문을 여닫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시대에 예수께서 여시는 문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지요.

6.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해당되며, 그때 어떤 문이 열렸다는 말씀인지요?

답: 그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1517년으로 보는가, 1798년으로 보는가에 따라 연대가 달라집니다. 1517년으로 보면 사데 시대를 1517년부터 1798년까지로 볼 수 있고, 두아디라 시대를 1798년까지로 보면 사데 시대가 1798년부터 예수 재림에 대한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1831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를 1517년까지로 볼 때에 빌라델비아 시대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로, 두아디라를 1798년까지로 보면, 빌라델비아 시대는 1831년부터 1844년까지 짧은 기간이 됩니다.

7. 교회 시대 연대를 그렇게 부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해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답: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것은 새벽별을 줄 것이라는 말을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개혁의 새벽별인 존 위클리프의 활동으로 여기고 결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1517년으로 보는 것이고, 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 사람이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영적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표상으로 보고 538년부터 1260년이 되는 1798년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예언적 1일은 역사적으로 1년이라는 것은 작년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말했지요. 이렇게 연대를 보는 것은 둘 다 일이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를 시대별로 보는 것은 연대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교회들의 실상에 비추어서 그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19절을 설명할 때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일곱 촛대와 일곱 별,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요한이 계시를 본 때로부터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일곱 역사적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복음 증거를 맡았기 때

문에 사단이 제국들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제국들의 흥망 성쇠가 예언되었지만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복음이 진행되는 것과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금년도 계시록 강론을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역사적으로 일곱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연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시대의 교회에 편지 내용이 적용되는 사실을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연대 구분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8.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깐 납득이 갑니다. 애청자들께서도 납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교회에 맡겼다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고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면 또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통하여 읽는 사람들이 깨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적 진행이 계시록 예언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답: 예, 목사님,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절에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의 열린 문에 대하여서는 주석가들의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남북으로 로마와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연결하는 빌라델비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를 “선교의 문”이라고 하는 견해고요, (2) “그리스도의 문”인데, “기도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3)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의 견해가 무난하고 보편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에는 열린 문은 하늘성소 봉사와 관련되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신 말씀이지요.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미크란 에케이스 뒤나민”인데,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키며”는 “카이에테레스스”인데 반의적인 강조적 표현으로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곧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시련과 온갖 유혹을 했는데도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9. 목사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회로 보면 하늘성소 봉사와 관련된 말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답: 계시록 11:19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계시 중에 하늘 성전 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 문이 열리는 때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판에 동원되는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는 것과 심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에 예수께서 열린 문을 두십니다. 예수께서 닫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전의 문이잖아요. 심판과 관련되어 성전 문이 열리는 것은 지성소봉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 구조와 그 봉사를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업 중에 심판과 관련된 봉사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성소봉사입니다. 다니엘 8:9~14을 읽으면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후에 그 네 나라가 있는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돌아서 심히 커지고, 종내는 성소를 헐고 매일의 봉사를 작은 뿔이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작년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 작게 시작하여 심히 커진 뿔의 행패가 언제까지 이를까 물으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대답합니다. 2300주야, 곧 2300년이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데, 다니엘 9장 25절이 지적한 2300주야의 시작할 때로부터 계산하면 끝나는 때가 바로 1844년이 됩니다. 그때 성소정결 사업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지성소봉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바로 계시록 11:19에서 보여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문에 열리는 때입니다. 다니엘서에 2300주야 끝에는 작은 뿔의 행패를 심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성소 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바로 2300주야로 예언된 때와 일치하는 시대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2300주야의 끝 때이며, 그것이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바로 하늘 지성소봉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0.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단순한 것이 아니군요. 목사님 설명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시작할 때에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실 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사데 교회 시대가 1831년경에 끝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10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말씀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언된 내용을 깨달아 알았다는 의미도 포함된 칭찬입니다. 물론 수적으로도 적었고, 정말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열린 문은 하늘성소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셨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은 진리를 잘 증거하였고, 깨달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11.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인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답: 예, 아까도 말했지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한 번 읽는 것이 좋겠군요.

[계3: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는 외적인 황제 숭배나 핍박 같은 것도 아니었고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 가는 이세벨주의나 니골라당 같은 내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함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사단의 회”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들인데, 거짓의 아버지 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참된 유대인은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는 이면적(裏面的)인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롬2:28,29) 그들 “뗏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굴복한다고 믿었지요.(사45:14; 60:14)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 굴복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사단의 회”인 유대인들을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성을 부인한 혈통적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케 하심으로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심판과 관련된 말씀인데, 열린 문, 곧 지성소봉사인 심판 봉사와 관련된 말씀이지요.

12. 예, 목사님, 여러 가지 정황이 열린 문이 지성소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심판이 시작하는 때와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군요. 그런데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마쳐야 하겠습니까.

답: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지금 지성소 문이 열려 심판의 도구들을 죽 나열하여 보여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굳게 믿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성도들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적 위치와 사명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무리 중에 꼭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